

사회과학 대중화에 새 지평 개척

현실인식의 진보성 추구하는 사회과학지

박형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

진보적 성향으로 출판운동에 기여

사회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정신생활의 발전수준, 나아가 물질생활의 발전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사회과학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전부면을 총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발견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대안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때, 사회과학의 발전수준은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능력과 대안제시의 능력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의 발전수준은 사회과학 출판물의 질과 양에 의해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출판계에서 진보적 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 출판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갑고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6월민주항쟁 이후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과정에서 힘입고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 하에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인식활동이 제약되고, 출판활동 역시 공권력의 탄압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5공화국 하에서도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등의 법적 장치를 매개로 하여 출판의 자유 및 그와 밀접히 연관되는 학문 및 표현의 자유는 극심하게 제약되었다. 그러한 강압이 아직도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사회과학출판사들의 용기있는 결단과 투쟁에 의해서 출판영역은 크게 확장되었고, 사회과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커다란 자극제가 되어주었다. 근래에 진보적 사회과학잡지가 크게 늘어나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도 출판운동의 기여가 적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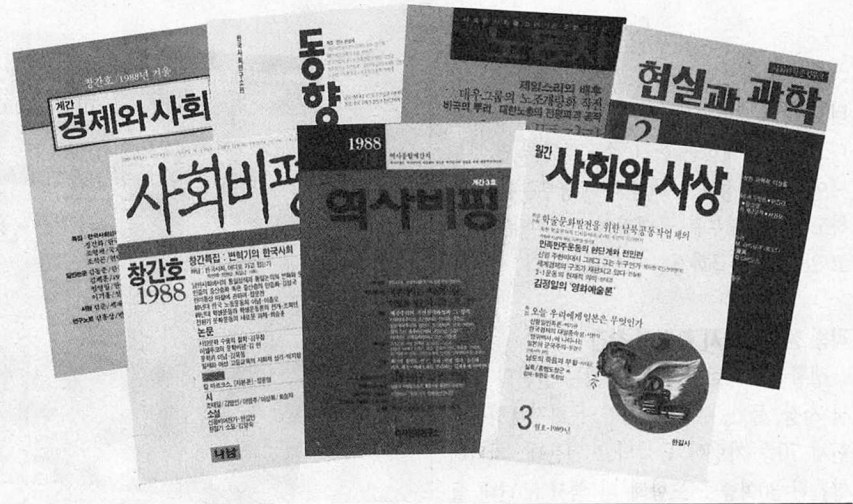
현재 간행되고 있는 사회과학 잡지를 꼽아 보자면, 먼저 월간지로는 「사회와 사상」(한길사), 준사회과학잡지인 「노동자」(백산서당)가 있으며, 계간지로는 「경제와 사회」(산업사회연구회편, 까치), 「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소편, 역사비평사) 등이 있고, 여기에 「창작과 비평」(창작과 비평사), 「문학과 사회」(문학과 지성사) 등 문예잡지들이 진보적 학계의 연구성과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반년간으로는 「사회비평」(나남출판사)이 있으며, 무크지로서 「사회경제비평」(사회경제학회, 한울), 「동향과 전망」(한국사회연구소편, 태암), 「기사연리포트」(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민중사), 「현실과 과학」(새길), 「녹두서평」(녹두), 「사상운동」(한마당) 등이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잡지들은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학회나 연구소 단위에서 연구성과를 묶어 출간하는 기관지적 성격의 잡지(경제와 사회, 사회경제비평, 역사비평, 동향과 전망 등)와 특정의 이론적 정치적 입장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둔 전문이론서(현실과 과학, 녹두서평), 당면 현실의 구체적 변화를 분석하는 정세분석지(기사연리포트, 동향과 전망), 사회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준전문 대중사회과학지(사회와 사상, 사상운동, 사회비평, 사상과 정책)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집단적 연구성과의 대중화

학회나 연구소의 집단적인 연구성과를 외화해내는 잡지의 출간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새로운 사회과학 잡지들은 대부분 민주적 이념과 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내세우고 있는 사회과학 학회나 연구소에서 집단연구의 성과로서 내놓고 있다는 데 커다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공식화된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에 익숙해 있는 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계급 또는 계층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끊임없는 논쟁이 현대 사회과학사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사회과학 잡지들을 그동안의 일방적이고 절름발이인 미국식 일변도의 사회과학을 주체적 입장에서 교정하고 사회과학 독자들의 편식을 어느 정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정의 이론적 정치적 입장에서 논쟁적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성격을 해명하고자 하는 「현실과 과학」 및 「녹두서평」은 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회구성체 논쟁의 보다 발전되고 세련화된 형식에 의한 전개라 할 수 있다. 재야운동세력내의 운동론 논쟁과 맞물려 진행된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 규정하는 입장이 「현실과 과학」의 논진으로 포진하고, '식민지반봉건사회'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는 입장이 「녹두서평」의 논진으로 포진하여 자기의 이론을 보다 정교



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간의 잡지들이 대부분 입장에 관계없이 글들을 단순하게 묶는 형식에 머물렀다 한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잡지가 사회과학출판에서도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논쟁의 화급성에 쫓겨 이론의 충실한 발전을 기하기 보다는 공허한 말의 성찬으로 지면이 채워질 위험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의 이론지를 표방하는 잡지들과는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현상들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잡지들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향과 전망」 및 「기사연리포트」의 시도는 당면의 정세분석에 관심이 있는 진보적 지식인 및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매우 큰 유용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사연리포트」가 주로 해당시기에 벌어졌던 정치 경제 사회운동의 흐름을 정리하고, 자료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동향과 전망」은 주어진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구조분석으로까지 전진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발전경향을 탐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분석역량과 수준을 더욱 높인다면 민족민주운동의 정책개발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의 한정성, 주제의 중첩이 문제

사상의 대중화를 표방하면서 창간하여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회와 사상」은 사회과학이 일반 지식인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난해하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리고 그것의 깔끔한 편집기술과 현실인식의 기동성은 사회과학의 대중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사상의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는 「사상운동」은 철학의 과학성 회복과 불교철학의 당파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철학과 사회과학, 불교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과학 전문서의 전문적 내용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다 광범한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반대중들이 이데올로기적 인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인식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 이 잡지들이 갖는 중요성은 적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과학 잡지들에 대한 긍정적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즉, 사회과학 잡지들이 단명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구대상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특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의 사회과학잡지들에서 나타나는 필자의 한정성과 주제의 중첩이라는 문제점 때문이고, 동시에 거친 발언의 생명력 보다는 착실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의 확보가 갖는 생명력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화에의 요구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성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문화와 특화가 안정적인 고정독자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전문성의 강화가 반드시 대중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와 사상」은 이 점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전문성의 바탕 위에서야 대중성도 그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대중성 가운데 현재의 사회과학 잡지들에서 주요한 측면으로 되는 것은 전문성인 것이다. '전문성의 확보를 통한 대중성의 확보'가 사회과학 잡지들의 슬로건으로 되어야 할 때이다.